

가
가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작·연출. 김재엽

알리바이 연대기



국립극단

국립극단 알리바이 연대기

작·연출 김재엽

본 공연은 극단 드림플레이와 국립극단의 공동제작으로
2013년 9월 3일 국립극단 소극장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일정

2019년 10월 16일(수) - 11월 10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작·연출의 글	2
배우 인터뷰	“좋은 작품은 살아 있는 생물 같아요” ■ 이지현 5
줄거리	8
출연진	9
작품 이해돕기—1	개인의 삶을 역사로 만들기, 세 가지 장면 ■ 이지현 14
작품 이해돕기—2	한국 현대사 속 대중의 일상과 삶 ■ 김일수 17
작품 이해돕기—3	〈알리바이 연대기〉 타임라인 20
작품 이해돕기—4	공연 영상 속 그림, 정재호 작가의 작품소개 ■ 김학량 22
무대 디자인 스케치	24
연습 스케치	26
스태프 프로필	28
만드는 사람들	29

김재엽

2002년 신춘문에 당선을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극작가 겸 연출가. ‘해화동 1번지’의 4기 동인으로 기반을 다져온 김재엽은 〈알라바이 연대기〉와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와 같은 다큐멘터리극 뿐 아니라 〈배수의 고도〉처럼 드라마가 강한 작품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 극단 ‘드림플레이 테제21’의 예술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작품

〈록엔롤〉 〈애도하는 사람〉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 〈배수의 고도〉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 사람이 있다〉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 〈유령을 기다리며〉

수상내역

2015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알라바이 연대기〉
2013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 〈알라바이 연대기〉
2011	서울연극제 희곡상 〈여기, 사람이 있다〉
2009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연출상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
2005	거창국제연극제 대상·연출상 〈유령을 기다리며〉
2002	한국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페르소나〉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KTX 기차 안에서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1946년 해방된 이듬해 일본 오사카에서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으로 돌아오지만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다. 당시 일본 오사카 태생의 재일교포 2세였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열일곱의 소년이었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개인사를 정리하던 중 문득 궁금해진 할아버지의 개인사는 영원한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나의 아버지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경상북도 칠곡에 자리한 현대공원묘지에 잠들어 계신다. 그리고 몇 해 전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큰아버지 또한 세상을 떠났다. 큰아버지는 대전의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이미지는 일본 오사카의 한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사진 한 장 뿐이다. 할아버지는 왜 일제강점기에 오사카에 계셨을까.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2012년 11월 나의 아들 아론이 세상에 처음 나왔다. 이 녀석도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언젠가 아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무렵, 이 연극 한 편이 녀석의 궁금증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아버지

소년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해본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없다. 이 연극은 지금은 곁에 없는 죽은 아버지들의 삶에 대한 연극이다. 그리고 그 죽은 아버지들의 꿈이 바로 살아 있는 우리들이었음을 기억하는 연극이다.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자신보다도 가족들을 지키고자 애썼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고뇌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인다. 뒤늦게 철이 들려하는지 나는 이제야 역사를 만드는 이들이 바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교과서를 장식하는 수많은 국왕들과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위정자들의 알리바이에 환멸을 느낀 지 오래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멸의 공화국 시절에는 너무나 뜨악하여 알리바이조차 성립되지 못하는 넌센스가 난무했다. 가족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그런 넌센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아버지를 떠올려본다. 만나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를 상상해본다. 지배자의 국가에서 민중의 나라를 꿈꾸어 보았지만, 거듭 패배하고 좌절하고 결국 죽어버린 우리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을 무대 위에 오롯이 불러내어본다. 사라진 자들과 다시 만나본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다.

어머니

오래된 책들과 오사카에 대한 향수,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홀로 간직하고 계셨을 외로움과 나 자신의 무심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 곁엔 언제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가족들을 감싸주신 나의 어머니가 계셨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벌써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는 최근에 허리가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밝으시다. 내 연극의 다음 무대는 내 어머니의 개인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어머니가 된 나의 큰 누이와 아버지를 많이 닮아 여전히 순수한 나의 작은 누이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한다. 여전히 부족한 작품이지만, 초연 때를 돌아보니, 길고 긴 창작의 시간을 보냈고, 많은 관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재공연의 기회를 얻었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나의 아내이자, 새로이 ‘어머니’가 된 ‘아론 맘’ 소영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녀가 더욱 값진 연극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연인이 되고 싶다.

드림플레이 테제21

직설화법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화를 꾸며내기보다는 ‘연극이 아니어도 좋은 연극’을 만들고 싶다. 신화 속에서 꿈꾸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싸우기를,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하기 보다는 인문사회과학의 사유로 발가벗겨지기를 소망한다. ‘역사와 경제’라는 테마로 ‘드림플레이 테제21’을 꿈꾸려 한다. <알리바이 연대기>는 가장 사적인 시공간에서 가장 공적인 시공간을 발견해보려는 ‘드림플레이 테제21’의 출발점이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독히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게다가 뻔뻔함을 더해 아버지와 형과 나의 실명을 사용했다. 그랬기에 연습과 공연 내내 무대 위의 모든 배우들이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행운을 누렸다. 지난 해 초연 연습부터 지금껏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나와 내 가족들을 타인이 아닌, 한 가족 이상으로 애정을 품어주셨다. 무대 위의 아버지 남명렬 선생님이 ‘재엽아’ 혹은 ‘엽아’라고 대사를 하실 때마다 간혹 나도 모르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무대 위의 어머니 전국향 선생님을 뵈 때마다 대구에 계신 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연습 내내 그리고 공연 내내 좋은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애정으로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3년 초연 때 공동제작을 제안해주신 손진책 예술감독님과 2014년 재공연의 공동기획을 함께 해주신 김윤철 예술감독님, 그리고 올해 2019년 국립극단 레퍼토리 제작공연으로 작품을 큰 품으로 안아주신 이성열 예술감독님을 비롯한 국립극단 가족들의 진심어린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연 때부터 변함없이 작품을 아껴주시는 배우님들, 디자이너님들, 스태프님들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생애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은 살아 있는 생물 같아요”

9인의 배우를 만나다

일시 2019년 9월 30일 오후 6시
장소 국립극단 서계동 스튜디오 하나
진행·정리 이지현

지춘성 2013년 초연 당시 리딩을 했던 연습실이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에 있었어요. 그 연습실을 갈 때마다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죠. 다 같이 처음 만났던 날,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첫날부터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요.

백운철 생각해보면 연습 첫날부터 끈끈했네요.

유병훈 초연 때 출연 제안을 받고 어떤 배역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수락했는데, 매 공연마다 옷을 13번이나 갈아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국향 아무래도 그때보다 나이가 많아져서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웃음)

남명렬 초연 때 우리 모두 관객들의 반응을 굉장히 궁금해 했잖아요. 작품이 관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준원 배우가 “선배님, 우리 공연 땔죠?”라면서 눈을 빛내며 행복해했던 모습이에요.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재엽 연출이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려고 연극 만든 거 아닌데”라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좋아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유준원 저는 김재엽 연출의 해학과 유머가 있는 대사를 좋아해요. 〈알리바이 연대기〉는 특히 그런 장치들이 잘 녹아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명렬 초연 당시 관객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작품이 기존의 희곡 양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시대를 넘나드는 방법과 인물이 바뀌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와 관객들이 생각하는 코드 사이에 연결고리가 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 당시 김재엽 연출이 이 작품에 ‘연극이 아니어도 좋은 연극’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연극보다도 더욱 연극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관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어요.

유병훈 초연 당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좋은 작품입니다. 보러 오셔도 돼요’라고요. 〈알리바이 연대기〉는 제가 처음으로 자신 있었던 작품이에요.

정원조 이 작품의 생명력이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로서 이런 작품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춘성 초연 때 멤버들이 그대로 다시 모인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유종연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 초연 때도 연락이 왔었지만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어요. 매번 다른 공연 일정과 겹쳐 아직까지도 〈알리바이 연대기〉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출연을 해서 못 보게 됐네요. (웃음)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는 것

- 이종무 초연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막연하게 슬픈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공연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무섭게 다가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고, 저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순간을 맞이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늙어간다는 거겠죠.
- 유병훈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다시 대본을 읽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저한테 있어서 이 연극은 아버지 이야기에요.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요. 놀라운 진정성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그것도 힘 주지 않고서.
- 남명렬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실제 아버지를 이야기한 연극이잖아요. 이 작품의 대사 중에 사소하게 보이는 한 문장조차도,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세월 동안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정한 이야기가 드러난 것일 수 있죠. 아무리 상상한 인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 쓴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만큼 함축적인 말들을 희곡에 담을 수는 없다고 봐요. 〈알리바이 연대기〉 속에는 그렇게 응축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장르나 글쓰기 형태를 초월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백명철 2005년 당시 극단 드림플레이를 처음 창단하면서 서로 희곡을 쓰고 피드백을 주고받던 시절, 김재엽 연출이 누군가에게 “그건 네 이야기를 희곡으로 썼기 때문에 연극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런 작품을 내놓은 게 신기했죠. (웃음)

배우가 실제 인물을 연기할 때

- 정원조 내가 아는 실제 재엽이의 이야기라고 해도, 어쨌든 저는 대본 속의 인물을 연기하기 때문에 김재엽 연출이 의식되지는 않았어요.
- 백운철 지금까지 재엽 역할을 네 번 〈알리바이 연대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생각은 자유〉 〈병동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이나 했는데, 다음 작품에서 재엽으로 또 캐스팅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 정원조 김재엽 연출이 이제 하지 말자고 했어요. (웃음) 하지만 다시 제안이 온다면 대본을 보고 결정해야죠.
- 이종무 저는 초연 때는 실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부담은 없는데, 다만 지난 공연 때보다 ‘1986년도에 재진이 형이 했던 고민은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 지춘성 몇 년 전의 관객처럼, 새롭게 만나는 관객분들도 우리 작품을 좋게 봐주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관객은 정말 변화무쌍한 존재이고,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새로운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라요. 잘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종무 이 작품을 소극장에서 올렸을 때는 공연과 관객과 배우가 서로 분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는데, 명동예술극장은 일단 무대와 객석이 명확히 분리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리감에서 오는 걱정이 약간 들긴 해요.
- 유병훈 저는 좋은 작품은 살아 있는 생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극장에서 하더라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전국향 대본을 몇 년 만에 새로이 보니까 전보다 더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관객들도 다시 한 번 봐도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배우들도 진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연기하면 관객들도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 백운철 즐거웠던 시간이, 끝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 유종연 제가 (다른 공연 일정과 겹쳐서) 연습에 많이 빠지는데도 언제나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덕분에 힘이 나요. 사실 처음 합류할 때는, 기존에 좋았던 공연에서 변화되는 요소에 대해 관객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습실에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잊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 병훈이 형이 제 손을 끌고 가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맞춰주세요. 그럴 때면 진짜 재미있게 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 전국향 물론 작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유준원 나는 어떻게든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 있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매일매일 다르게 할 거예요. (웃음)
- 정원조 저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5년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 남명렬 5년 사이에 모두가 함께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정원조 배우는 위트가 더 많아졌어요.
- 유병훈 이제 정원조 배우가 남충런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웃음)
- 남명렬 <알리바이 연대기>는 자칫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질 주제들을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보면서 10분에 한 번은 웃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작품이 가진 미덕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관객분들도 공연을 보는 동안 즐겁게 만든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무 요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진영논리’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극은 정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미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이번 공연에서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

제 이름은 ‘재엽’입니다.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를 쓰고 연출한 김재엽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저와 형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1930년 일본국 대판시(현 오사카) 동성구 대금리정 556번지에서 태어난

故 김태용 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 신병 훈련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버지의 눈물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을 이해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알리바이를 알려주셨습니다.

흐려진 진실과 폭격의 굉음이 더 익숙한 세상을 살아온 아버지.

언젠가 인생의 알리바이를 고백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저도 아버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My name is Jae-yeop.

I have written and directed *Chronicle of Alibis*.

This play is about my father, my brother and myself. My father, the late Kim Tae-yong, was born in Taipan (now Osaka), Japan, in 1930.

Years ago, my father sobbed in front of the boot camp where I'd received my basic military training. For some reason, the image of my father's tears that day stuck with me for many years afterwards. It took me a long time to understand those tears.

In his final moments, my father told me about one alibi.

Throughout his life, he'd been used to opaque truths and the deafening roar of bombardment.

Should the moment ever come for me to confess my life's alibi, will I have the same courage as my father?



남명렬 Nam Myeong-ryeol

아버지 김태웅 Kim Tae-yong

출연작

〈그을린 사랑〉 19 | 에르밀 르벨/말락 | 올림픽공원 K아트홀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14 | 크리스토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나는 나의 아내다〉 13 | 샬롯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The Game-죄와 벌〉 12 | 뽀르피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마라, 사드〉 09 | 사드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코펜하겐〉 09 | 닐스 보어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갈매기〉 04 | 프리고린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바다와 양산〉 04 | 최준모(사예키 요지) | 아롱구지극장
 〈사라치〉 00 | 남자 | 문예회관 소극장
 〈이디푸스와 여행〉 95 | 죠카스터/크레온 | 동송홀
 외

수상

2013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3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2012 김동훈연극상
 2009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2009 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02 서울공연예술제 연기상
 2002 영화연극상



전국향 Jeon Guk-hyang

어머니, 아주머니 Mother et al.

출연작

〈율구〉 19 | 노파 |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
 〈단편소설집〉 19 | 루스 스타이너 | 대학로 SH아트홀
 〈인형의 집, part.2〉 | 앤 마리 | LG아트센터
 〈신의 아그네스〉 18 | 원장수녀 | 동양예술극장 2관
 〈예도하는 사람〉 18 | 준코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이카이노의 눈〉 19 | 큰어머니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수상

2019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7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16 임흥식배우상
 2016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최우수연기상
 2015 2인극페스티벌 연기상
 2010 서울연극제 연기상



정원조 Jeong Won-jo

재업 Jae-yeop

출연작

〈자기 앞의 생〉 19 | 카츠 의사 | 명동예술극장
 〈록앤롤〉 18 | 나이젤 | 명동예술극장
 〈오솔로〉 18 | 아이르 허시펠트 | 명동예술극장
 〈사물함〉 18 | 재우 | 국립극단 소극장 판
 〈더 헬멧〉 18 | 헬멧A | 아트원씨어터 3관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재업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글로리아〉 17 | 로린 | 아트원씨어터 3관
 〈생각은 자유〉 17 | 재업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베헤모스〉 17 | 오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고래햄릿〉 16 | 햄릿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외



이종무 Lee Jong-moo

청년태용, 재진 Young Tae-yong and Jae-jin

출연작

〈콘서트-동의〉 19 | 팀 | 명동예술극장
 〈고독한 목욕〉 19 | 송씨 | 백성희장민호극장
 〈록앤롤〉 18 | 안 | 명동예술극장
 〈운명〉 18 | 양길삼 | 백성희장민호극장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18 | 준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3월의 눈〉 18 | 황씨 | 명동예술극장
 〈비평가〉 17 | 스카르파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그렇게 산을 넘는다〉 17 | 아빠 | 아라리오뮤지엄 소극장 외
 〈과한하는 마음-숲의 심연〉 16 | 일호 | 서강대 메리홀소극장
 〈깃븐우리절문날〉 15 | 구보 박태원 | 선돌극장
 외

수상

2016 제16회 한국 국제 2인극 페스티벌 연기상



지춘성 Ji Choon-sung

소년태용, 소년재진, 소년재엽 Tae-yong, Jae-jin and Jae-yeop as a boy

출연작

〈생각은 자유〉 17 | 장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고래헛릿〉 16 | 폴로니우스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다목리 미상번지〉 16 | 강바리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메밀꽃 필 무렵〉 15 | 젊은 나귀/허생원/동이어머니 | 축제극장 몸짓 외
 〈불량청년〉 15 | 이시영 | 대학로 자유극장
 〈라오지양후 최막심〉 15 | 천보 | 명동예술극장
 〈풍찬노숙〉 13 | 정갑사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히로시마-합천: 두 도시를 둘러싼 전람회 서울ver〉 12 | 지춘성 |
 스튜디오 다락

〈코뿔소〉 10 | 뒤다르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모는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 09 | 모 | 고양 별모래극장
 외

수상

2018 서울특별시 문화상
 2014 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14 제35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06 제6회 2인극페스티벌 연기상
 1996 영창연기상
 1992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1991 서울연극제 남자주연상



유준원 Ryu Joon-won

교장, 영남정치인1, 큰아버지, 책방주인, 형사반장, 취객2, 부동산,
 백골단 Jae-yeop's uncle et al.

출연작

〈우정어린 두 여자의 낯 뜨거운 이야기〉 19 | 종년남자 | 동송무대 소극장
 〈고해, 고해〉 19 | 남자 | 지줄소극장
 〈금의환향〉 19 | 서장 | 성수아트홀 외
 〈성수〉 18 | 극단대표/요리사 | 예술공간 혜화
 〈사랑해 엄마〉 18 | 최문길 | 해오름 예술극장 외
 〈성실하고 창조적인〉 17 | 박정식2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살아있는 이종생 각하〉 15 | 이종생 |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헛릿〉 15 | 클로디우스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14 | 인민군 장교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한꺼번에 두 주인을〉 12 | 브리젤라 | 명동예술극장
 외



유병훈 Yoo Byung-hoon

공익1, 소년의 아버지, 소년의 형님, 청년의 형님, 요원1, 영남정치인2, 사촌형님, 아저씨, 형사1, 선동렬, 용현, 남총련, 사촌형님 Jae-yeop's cousin brother et al.

출연작

〈나는 살인자입니다〉 19 | 인부/노인/형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상구 | 명동예술극장
 〈아라비안 나이트〉 18 | 칼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목란언니〉 17 | 김정은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탈출〉 16 | 브로커 추태노인 | 국립극장 하늘극장
 외



백운철 Baek Woon-cheol

공익2, 벽보장이, 요원2, 신문팔이, 헌책방 점원, 응원단장, 반장, 성훈 Seong-Hoon et al.

출연작

〈자본〉 18 | 윤철 |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검열언어의 정치학〉 17 | 다역 | 성미산마을극장
 〈싸이코패스는 고양이를 죽인다〉 17 | 회사원 | 연주소극장 외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14 | 다역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10 | 광석 | 미마지 아트센터 풀빛극장
 〈장석조네 사람들〉 11 | 장석조 의사 |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여기, 사람이 있다〉 11 | 김지섭 | 연주소극장
 〈유령을 기다리며〉 07 | 클로디어스 | 한양레퍼토리씨어터
 외



유종연 Yoo Jong-yeon

공익3, 요원3, 선거운동원, 형사2, 취객1, 담임선생님, 전투경찰 Public service worker3 et al.

출연작

연극

〈남쪽나라로〉 19 | 표창근 | 대학로 선돌극장
 〈장수상회〉 18 | 멀티남 |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생각은 자유〉 17 | 멀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승관도〉 16 | 각하 | 드림씨어터
 〈국가 없는 나라: 사라진 기억들〉 16 | 종연 | 혜화동1번지
 〈검열언어의 정치학〉 16 | 박대출/이한신 | 연우소극장 외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14 | 피자배달원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영화

〈기방도령〉 〈미쓰백〉 〈특종:랑첸살인기〉 외 다수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슬기로운 감빵생활〉 외 다수



사건들을 그것들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헤아리는 연대기 기술자는 그로써 일찍이 과거에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역사에서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중시한다. 물론 구원된 인류에게 비로소 그들의 과거가 완전히 주어지게 된다.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개인의 삶을 역사로 만들기,

세 가지 장면

개인의 역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는가? 또한 그렇게 구축된 개별적인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닌 채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가?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를 쓰고 연출한 김재엽은 자신의 아버지 故 김태웅(1930~2004)을 중심으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펼쳐낸다. 아버지와 형, 그리고 작가 자신의 삶으로부터 사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자.

장면 하나. 태웅문고에서 미지의 세계를 꿈꾸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5층 개인문고실에는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김태웅의 기증도서 3,392권으로 구성된 ‘태웅문고’가 있다. 책들의 숲을 연상시키는 이 장소는 〈알리바이 연대기〉에서 과거와 현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무대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그리고 이곳에서 막내아들 재엽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엮어내기 시작한다. 특히 재엽은 태웅문고와 마주보고 있는 ‘박정희특수자료’ 책장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을 떠올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던 대학도서관 개인문고실은, 이제 이 연극에서 현대 한국 사회를 겪어낸 개인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된다.

1930년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태평양전쟁을 겪었던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을 맞닥뜨린다. 끊임없는 전쟁 상황 속에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던 아버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그 중에서도 외국어로 된 책들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삶에서 ‘영어’는 각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어릴 적 미국 잡지책 속에서 처음 만난 영어는 아버지로 하여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느 곳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1940년대 초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에서 영어 교육이 금지된 이후, 아버지의 세계에서 영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자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기호가 되어 그를 영어교사라는 직업으로까지 이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호는 또 다른 어딘가를 가리키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원서들로 변주되어 아버지의 숲을 가득 메워나갔다.

태웅문고 책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권의 책들은 아버지와 아들들의 연대기를 풍성하게 잇는 매개체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대사 “사느

이지현_드라마투르크



나,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삶의 방식을 고민할 때마다 그를 줄곧 따라다녔던 문장이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아들을 향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셰익스피어의 문장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킨다. 이윽고 태웅문고의 책장은 재업의 것으로 변형되며, 이제 그곳에는 브레히트의 시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자리한다. 90년대 학생운동을 겪은 재업이 부채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풍경을 닮은 책들의 숲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면 돌. 배우의 존재를 통해 확장되는 개인의 스펙트럼

이 공연에서 배우 남명렬(아버지 역)과 정원조(재업 역)를 제외한 모든 배우들은 1인 다역을 맡는다. 각각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로 변화하는 동안, 이들은 제각기 다양한 색채의 스펙트럼을 형성해낸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을 통해 시대적 사건의 흔적들과 개별적인 선택들이 무대 위에서 겹쳐진다.

흑백사진에 담긴 아버지의 ‘소년 시절’은 배우 지춘성의 존재를 통해 역동적으로 되살아난다. 지춘성은 아버지와 형 재진, 그리고 재업 세 사람의 소년 시절 역할을 맡는다. 소년 시절의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 미국 잡지를 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으나 이내 전쟁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태웅, 아버지가 사준 일제 내셔널 장난감 권총을 갖고 놀던 재진, 그리고 80년대 프로야구의 열기를 체감하기 시작했던 어린 날의 재업까지. 세 부자(父子)가 새로운 문화와 만나는 장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닮아 있는 호기심과 희망의 모습으로 반짝인다. 소년이 선글라스를 끼고 박정희 코스프레를 하는 장면에서는 아버지 태웅과 직접 조우하여 “네 것이 곧 내 것”라는 유희로 티격태격하고, 전쟁의 공포를 안고 있는 소년 태웅을 향해 청년 태웅은 “너는 어차피 나”라며 소년의 손을 붙잡고 군대로 끌고 간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시대적 사건들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을 통해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유기적인 맥락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번갈아 느끼는 ‘청년 시절’의 아버지와 형은 배우 이종무를 통해 연결된다. 국토건설요원 시절 장준하 선생을 만나 처음으로 뒷사람에 대한 희망을 느꼈지만 곧 박정희의 군사 정권을 맞닥뜨려야 했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던 큰아들 재진이 된다. 아버지와 형제의 소년과 청년 시절이 각각 두 명의 배우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아버지와 형과 나의 연대기’로 이어지는 전개에 감각적인 설득력이 생겨난다.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의 또 다른 측면을 비추는 역할들은, 무대 위에서 배우 유준원을 통해 강렬한 인상으로 나타난다. 재업의 큰아버지,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반장, 전교조에 반대하는 교장, 영남정치인 등은 소위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시대적 변천과 상황에 따른 면면을 다양하게 그려낸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우애가 깊으면서도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의견충돌을 빚는데,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흔적을 평생 동안 몸과 마음에 안은 채 살아간 인물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등장인물들은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인물상으로 구현된다.

이처럼 <알리바이 연대기>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를 겪어온 각각의 개인들을 다채롭게 조명함으로써, 단순히 ‘애국’ 또는 ‘빨갱이’와 같은 단편적인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에게 입체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재엽은 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주하며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는 개인들의 연대기를 기록해나간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상반된, 또는 유사한 성향들이 지닌 면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낸다. 이 개인들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을 통해 고유한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확장시켜 드러낸다.

장면 셋. 개인의 역사들이 서로를 마주볼 때



역사적 사건들이 말해주는 제한된 진실은 그 속에 담긴 무수히 많은 세부사항들을 놓치기 마련이다. 개인은 시대를 관통하는 사건을 몸소 겪으면서, 국가가 아닌 자신에게 책임이 지워진 가치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각 개인의 개별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거시적 역사의 주인공들은,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의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재엽의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들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중간’의 위치를 선택한다. 이윽고 자신의 삶이 서서히 역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버지는 인생에서 애써 숨기고 싶었던 알리바이를 막내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스스로의 진실과 마주한다.

2013년 초연과 2014년 재공연 이후 5년 만에 명동예술극장에서 새롭게 공연되는 <알리바이 연대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한국 사회의 갈등과 첨예하게 맞닿아 있다. 2019년 한국은 정치적인 분열이 가속화되고,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의 의미가 양분되며, 성향이 다른 상대편 진영을 단편적인 단어와 이미지로 규정하면서 배타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연극은 극장을 나서는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자신의 역사와 타인의 역사가 지닌 스펙트럼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쯤 생겨날지도 모른다.

미증유의 격동, 20세기의 한국

20세기는 폭력의 시대였다.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재편되었다.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은 전쟁으로 발화되었다.

단재 신채호는 이러한 시대를 “풍운이 기하는 듯, 홍수가 구하는 듯, 뇌진이 명하는 듯, 조가 타하는 듯, 화가 분하는 듯 20세기의 제국주의여”로 표현하였다. 또 “제국주의에게 굴복하여 세계무대가 제국주의적 활극장을 성하였도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8일자)고 덧붙였다. 제국주의의 발호에 대해 단재가 제시한 저항 방법은 ‘민족주의의 분취’였다.

단재의 주장이 통했을까. 같은해 10월 26일 이국땅 하얼빈에서 안중근은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그 뒤 안중근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을 ‘한국의 독립 회복’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 폭압적 일제 식민통치를 분쇄할 3.1운동이 전민족적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한국의 독립국임과 한국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세계만방에 인류평등의 대의와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제의 침탈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그 가운데 1930년 당시 일본 거주 한국인은 무려 42만 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았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농민들이 경제문제로 도일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노동자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1928년 도교부 사회과의 통계에 따르면, 도쿄 거주 한국인 노동자 4백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43원의 수입에 생활비는 56년 95전으로 계상되었다. 곧 가구 구성 노동자층의 경우 월간 13원이 부족한 상태로 생활고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에 1945년 8월 15일의 일제의 패망에 따른 한국의 해방은 참으로 감격스런 것이었다.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았던 것이니 말이다. 극작가 김이식은 해방을 ‘세계 제일의 기쁨’이라 규정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형,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형제 등 3세대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보면 해방의 기쁨은 남달랐을 것이다. 그렇다 식민지에 산 사람들 모두에게 해방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었다.

세계 제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귀환동포’라 불렀다. 하지만 해방이 된 고향 땅에서 ‘귀환동포’들의 삶은 해방의 기쁨과 달리 여전히 팍팍했다. 농촌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도시로 나갔다. 살기 위해 직업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일국민국가의 건설 노력이 분단으로 귀결되면서, 급기야 전쟁이라는 비극적 불씨를 품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자 세계전적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참전한 가운데 5백만 명 이상의 인적 손실과 셀 수 없는 물적 피해를 당하고서도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냉전은 더욱 공고해졌다. 한반도의 남쪽, 대구는 비점령지역이지만 낙동강전

한국현대사 속

대중의 일상과 삶

김일수_경운대학교 교양교육학부장

투와 동해안 전투의 거점이 되면서 전쟁의 위기와 공포는 대구의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 몰려드는 피난민,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교차되는 대구역이 말해주듯 혼돈의 연속이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곱씹게 만든 역사적 계기였어야 했다. 하지만 이른바 ‘법살’로 알려진 조봉암사건이 보여주듯 1950년대 한국사회의 냉전적 반공주의는 더욱 공고해졌고, 세계적으로 동서냉전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 1950년대 한국경제의 대명사인 원조경제 아래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그렇다 해서 한국인의 경제적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게다가 1959년 9월 17일 추석날 아침 20세기 한국의 가장 큰 자연재난으로 기록된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를 덮쳤다. 시속 60마일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서 대구를 거쳐 동해로 빠져 나간 사라호는 한반도의 남부지방을 일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사라호가 빠져 나간 다음해인 1960년에 4월혁명이 일어났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변혁 운동이 불같이 일었던 것이다. 4월혁명은 식민지, 분단과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존재의 의미를 놓지 않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인 대중들이 비로소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5.16 군부정권은 반공주의·성장주의·권위주의 등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하는 유신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를 권위주의 관료체제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갖춘 나라로 만들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의 군정연장 반대, 한일외교 반대, 19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청년 전태일로 상징되는 노동자의 노력과 정부주도의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1979년 10월, 유신체제의 붕괴도 잠시 ‘80년의 봄’과 광주민주항쟁을 짓밟은 신군부는 제5공화국을 통해 군부통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1985년부터 정지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1987년 6월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1988년 88올림픽은 160여 국이 참가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뒤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1990년대 금융위기와 ‘IMF사태’로 큰 위기를 맞아 성장주의의 한국경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격변이었다. 세기적 역사적 사건들로 점철된 파노라마 속에 한국 사회가 자리했던 것이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개인의 양심, 삶의 가치가 거대한 구조와 맞부딪히는 국면에서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어쩌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체념을 강요당하면서 일상을 지내지 않았을까.

보통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자

21세기 접어들어 역사란 특정계급과 특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대중화되고 있다. 신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하루하루 익숙한, 그리고 외형상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아니면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해명하고 싶어 한다. 앞선 세대들의 다수는 보통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대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와 체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우리 사회의 역사와 부단하게 부딪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무능과 무지의 존재로 오해받았거나 배척받았던 역사 없는 사람들이었다.

대중은 ‘개인, 곧 주체’이다. 그들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이제 역사는 수동적 존재로 오인되었던 대중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해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가 소수의 대한 기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이란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특수한 계기를 형성하며, 주체와 사회의 개인적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중들의 일상 또는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려 했던 사회적 구조와 어떻게 맞부딪히면서 자신들의 삶을 형성해 나갔는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들이 사회와 맞부딪히면서 내면화한 일상의 광범위한 상징적 질서, 곧 경험방식, 행위규칙, 의미부여, 가치 등을 발견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역사시대를 살아간 보통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다종다양한 삶이 역사로 조명되길 기대할 것이다. 그것이 시대에 순응하면서도 변동의 물줄기를 일구어 낸 자신들의 삶을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시대의 주인이지만 역사에서 소외된 대중들, 곧 보통사람들의 역사를 드러내는 작업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사명일 것이다.

가까운 과거와 주변을 살펴보자. 현재의 뿌리에 해당할 오래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꿰어 보자. 그들이 지낸 시간과 일상을 거울로 삼아 역사 속에 가라앉아 있을 대중들의 삶의 지향과 형세, 정서와 감성, 문화와 소통해 보자. 이제 지난 격동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린 역사의 광장으로 인도해 보자. 지난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보며 삶을 이야기하는 마당을 열어보자.

1930년

아버지 출생

일본 오사카, 김재엽의 아버지 김태용이 태어나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마침내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이 된다. 소년 태용은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닌 ‘조선 사람’임을 깨닫고 정체성의 고민을 시작한다.

이승만—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우익 진영 지도자로 광복 직후 1948년부터 1,2,3대 대통령을 거쳤다. 한국전쟁 당시 대미외교에 주력했으며, 전쟁 직후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1960년 4대 대통령에 연임되었으나, 이 선거는 곧 부정선거로 밝혀진다.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이후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1947년

17세의 아버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 해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으로 들어온 아버지, 박정희를 처음 만나다. 일본의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된다.

박정희(1917-1979)—대한민국의 제5~9대 대통령.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정을 실시하였다. 1963년 대통령이 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유신체제를 선언하고 독재 정권을 이끌었다.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국민 시위로 갈등을 겪던 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다.

1950년

21세의 아버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된 아버지, 광주의 포병학교에서 박정희를 다시 만나다.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이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중국군과 소련군이 가세하여 규모가 확산되었다. 3년이 지난 1953년이 되어서야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휴전협정이 맺어졌고, 오늘날까지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1961년

1961년 장면정부시절, 아버지가 공개채용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다. 장준하 선생을 만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운다. 곧이어 일어난 5.16군사쿠데타에서 아버지는 박정희를 세 번째로 목격한다.

장면(1899-1966)—초대 주미대사로 활동하였으며,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1956년 야당 출신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0년 4.19혁명을 통해 국무총리로 선출되어 정권을 잡았다. 장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곧이어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고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9개월만에 실각하고 말았다.

장준하(1918-1975)—광복군 출신으로 박정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언론인이자 정치인. 대표저서로 〈돌베개〉가 있으며, 월간 〈사상계〉를 발행하여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치를 비판하였다. 장준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막사이사이상 언론부문을 수상했다. 1975년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 절벽에서 의문의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1971년

아버지가 형 재진을 데리고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유세 현장에 가다.

김대중(1924-2009)—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박정희와 겨루었다. 이후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개진하던 중 국내로 납치되었다. 투옥생활과 사형선고의 시간을 거쳐 1985년 정계로 복귀하였다. 이후에도 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신군부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자, 시민들은 군사정권이 재현되는 데에 반발하여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개진했다. 1980년 5월 17일 정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자 광주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는 시위를 전개했는데,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대에 총을 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형 재진이 동료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을 목격한다.

고향 대구에 돌아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다.

전두환(1931)—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 1979년 박정희 사망 이후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 되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였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듬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 탄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 1996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되었다.

재엽, 삼성라이온즈와 해태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경기를 관람한다.

한국시리즈—한국시리즈는 해마다 열리는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으로,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1986년에는 라이벌인 삼성(대구)과 해태(광주)가 맞붙어 해태가 우승하였다. 당시 해태에는 전설적인 투수 선동열이 있었고, 이 때의 우승을 시작으로 해태를 ‘왕조’라 불리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구에서 열린 3차전에서 홈팀 삼성이 한 점 차로 패배하자, 이제 격분한 삼성팬들은 해태선수단 버스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1989년

고등학생 재엽,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해직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다.

1995년

대학생이 된 재엽,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다.

연희동으로 진격하던 중 서태지의 집을 발견한다.

서태지(1972)—1992년 3인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하여 데뷔했다. 당시 헤비메탈 음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르에 사회적인 가사를 접목시켜 대한민국 가요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4장의 앨범을 발표한 뒤 1996년 돌연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후 서태지는 솔로앨범을 발표하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문화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재엽, 대구 옥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본다.

2004년

병상의 아버지, 재엽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고백한다.

2013년

재엽, 아버지와 형과 자신의 연대기를 대본으로 옮긴다.

공연 영상 속 그림,

정재호 작가의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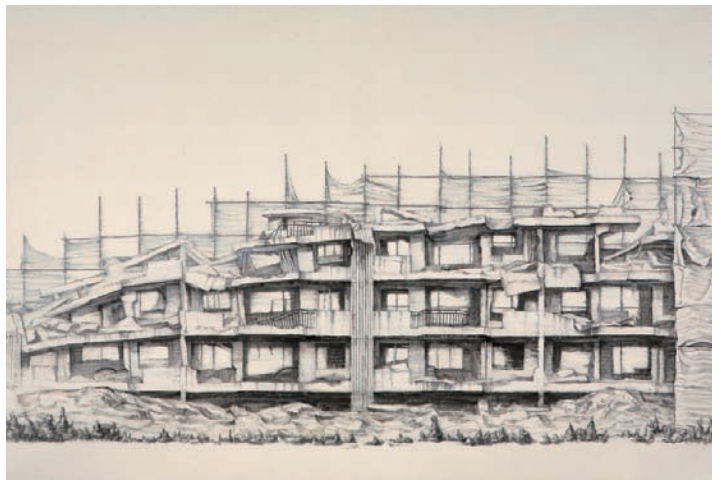
김학량_작가, 큐레이터, 동덕여대 교원

정재호

근대화 이후 도시 이면의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회화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운시민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작업을 통해 도시근대화의 얼굴을 그려내었고, 이후 〈아버지의 날〉 〈먼지의 날들〉 작업으로 6-70년대 압축성장 시대의 이미지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회화과에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세대〉



〈자본주의적 풍경〉

그는 아파트 연작 〈청운시민아파트〉(2004), 〈오래된 아파트〉(2005), 〈황홀의 건축〉(2007), 〈열섬〉(2017)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세세하게 대상과 그 주변 맥락을 탐사한다. 특히 도심 재개발에 밀려 헐려나가는 낡은 아파트나 도심 내 서민용 집합주거 빌딩을 세밀한 필치로 그려냈는데, 여기서 그의 목표는 사진처럼 정확하게 풍경의 파사드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내력과 체취를 머금은 포괄적인 환경 또는 살아 숨쉬는 육체로서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아파트는 저기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개인/



〈창신타워〉



〈난장이의 공〉



〈미동아파트〉



〈아현빌딩〉



〈용산병원〉

집단/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자신의 몸 그 자체이다. 아파트 연작과 더불어 잘 알려진 것이 아키비스트와 같은 자세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특정 사진이미지를 선택해 그린 연작 〈아버지의 날〉(2009), 〈흑성〉(2011), 〈먼지의 날들〉(2014)이다. 이 연작에서 정재호의 과거/이미지는 유령이나 안개처럼 우리/현재를 둘러싸거나, 우리의 삶을 폐허 한가운데로 자꾸 데려다 놓는다. 우리는 화가가 심해에서 건져 올린 과거/이미지를 통해서, 수면에서 흔들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렵사리 만난다.

■ 본 작가소개 글은

‘올 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 2018 Artists 정재호 Critic1’에서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거대한 벽, 책의 숲

그리고

기억

책이 숲을 이루고 있던 아버지의 방은 이제
아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책들은 아버지의
인생과 함께 서서히 역사화되고 뿌연 안개 속에
흐려지며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9년. 경북대학교 도서관 태웅문고의 서고를
하나하나 들여다 본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열망,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던 열정,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했던 교사의 모습과 자식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린시절을 보냈던
곳의 기억, 전쟁의 기억. 책들을 들여다보며 책을
한권 한권 사 모으던 그때의 마음을 느껴본다.
어쩌면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마주한
거대한 벽 앞에 서서, 그 벽에 대고 한 권 한 권
책을 새겨 넣었던 것은 아닐까.







작·연출—김재엽 Kim Jae-yeop

프로필 _ 2페이지

드라마투르기—이지현 Lee Ji-hyun

[드라마투르기 및 연출]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생각은 자유〉〈영화원〉

[조연출] 〈개공선〉〈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무대—서지영 Seo Ji-young

연극 〈남쪽나라로〉〈산책하는 침략자〉〈록엔롤〉〈비명자들〉〈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20세기 건담기〉〈손〉〈어쩔 수가 없어〉〈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장석조네 사람들〉외

수상 2017 제38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손〉
2013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무대예술상 〈알리바이 연대기〉

조명—최보윤 Choi Bo-yun

연극 〈죄와 벌〉〈죽고싶지않아〉〈알엔제이〉〈콘서트 – 동의〉〈나는 살 인자입니다〉〈록엔롤〉〈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피와 씨앗〉〈곤뽀이 이상〉〈목란언니〉〈나무 위의 군대〉〈나는 나의 아내다〉〈히스토리 보이즈〉〈그을린사람〉

음악 〈혁오 콘서트 23〉〈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이적 소극장 콘서트 – 무대〉〈김광민 콘서트〉〈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바리, abandoned〉

수상 2017 제 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 3회 서울연극인대상 – 스태프상 조명
2013 제 34회 서울연극제 무대 예술상 조명

의상—오수현 Oh Soo-hyun

연극 〈거대한 뿌리〉〈록엔롤〉〈산책하는 침략자〉〈페스트〉외

음악·음향—한재권 Han Jae-kwon

연극 〈록엔롤〉〈매직타임〉〈박수 칠 때 떠나라〉〈택시 드리벌〉〈체크메이트〉〈서울노트〉〈친정엄마와 2박3일〉〈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슬픈 인연〉〈날보러 와요〉〈생각은 자유〉〈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애도하는 사람〉외
뮤지컬 〈판타스틱스〉〈The Moon〉〈The Good〉〈오즈의 마법사〉

분장—이지연 Lee Ji-yeon

연극 〈말들의 집〉〈랭귀지 아카이브〉〈줄리엣과 줄리엣〉〈애도하는 사람〉〈아라비안 나이트〉외

뮤지컬 〈동동〉〈마이버킷 리스트〉〈적벽〉〈핑크퐁 상어가죽〉외

영상—윤민철 Yoon Kennikie

청운대학교 무대영상디자인과 교수

연극 〈갈매기〉〈1945〉〈빛의 제국〉〈빠의 기행〉〈글로리아〉〈히스토리 보이즈〉〈당신의손〉〈차이메리카〉〈그을린 사랑〉〈나는야연기왕〉〈비행소년〉

창극 〈산불〉〈아빠사우르스〉

오페라 〈세빌리아의이발사〉〈안나볼레나〉외

조연출—박효진 Park Hyo-jin

연극 [작·연출] 〈삶 : 잊혀진 것에 대하여1 – 인쇄공이야기〉〈괜찮지 않은 이는 없다〉〈식:구〉〈메밀꽃 필 무렵〉〈Miss, 미쓰김〉〈명자〉외
[조연출] 〈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검열언어의 정치학 2 – 김똥꿀의 비망록〉〈풍찬노숙〉〈여기 사람이 있다〉〈장석조네 사람들〉외

조연출—이진성 Lee Jin-seong

연극 [연출] 〈종이〉〈회사원 A씨〉〈이승 줌 어때?〉

[조연출] 〈미안해 사랑한다〉〈참적의 한〉

[배우] 〈칼〉〈IT SHOW〉

영화 [배우] 〈방황하는 칼날〉〈수난시대〉〈포크레인〉〈결갑스〉〈행복행장유씨!?〉외

남명렬 아버지 김태웅
백운철 신문팔이, 요원2 외
유병훈 사촌형님, 요원1 외
유종연 선거운동원, 전투경찰 외
유준원 큰아버지, 교장 외
이종무 재진 외
전국향 어머니 외
정원조 재업
지춘성 소년(아버지의 유년) 외

작·연출 김재엽

드라마투르기 이지현

무대 서지영

조명 최보윤

의상 오수현

음악·음향 한재권

영상 윤민철

소품 박현이

분장 이지연

조명디자인 보 효유진

의상디자인 보 최미림 박진영

음악감독 보 조충만 정나현

소품디자인 보 최소리 이소정 김연경

무대감독 신승호 나혜민

무대진행 김민주 김학준 김영주

의상진행 신은혜 최미림

영상오퍼레이터 최민숙

조명팔로우 오퍼레이터 손민영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김혜란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감독·음향오퍼레이터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음향팀 박상준

영상팀 임리원 박재정

조명팀 홍주희 유승열 김소현 오미남 조예지

박소라 정하영 유보민

분장팀 가해진 전다희

무대제작 쇼앤아트_대표 전계식

의상제작 메리엘_대표 오수현

소품제작 풀스_대표 박현이

영상장비임차 인터렉션랩_대표 윤민철

녹음 Moon studio_대표 한재권

영상 그림이미지 제공 정재호

일본어감수 이진

영문자막 제공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한국문학
번역원

영문자막 번역 조윤나 Kim Stoker

영문자막 검토·수정 조용경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승이

마케팅 이정민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효진
김을 조영채

대학생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_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정 정기웅 황지연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WT

홍보영상 602STUDIO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홍보사진 이승희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옥외광고 킨비즈 애니애드

홍보물 인쇄 안타임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노소연
박민주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해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유지율 고정윤
강소현 강유석 장지영 채지성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철순

제작진행 신지우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영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박소영 프로듀서 보 |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김울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지 배규림 작문강사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웅 홍아론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뼈의 기행〉
〈스카팜〉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뼈의 기행〉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센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센트-동의〉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김수아

〈뼈의 기행〉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센트-동의〉
〈스카팜〉



강해진

〈뼈의 기행〉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조남웅

〈뼈의 기행〉
〈한여름 밤의 꿈〉



국립극단
SINCE 1950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율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HINSEGAE
DUTY FREE
韩际新世界免税店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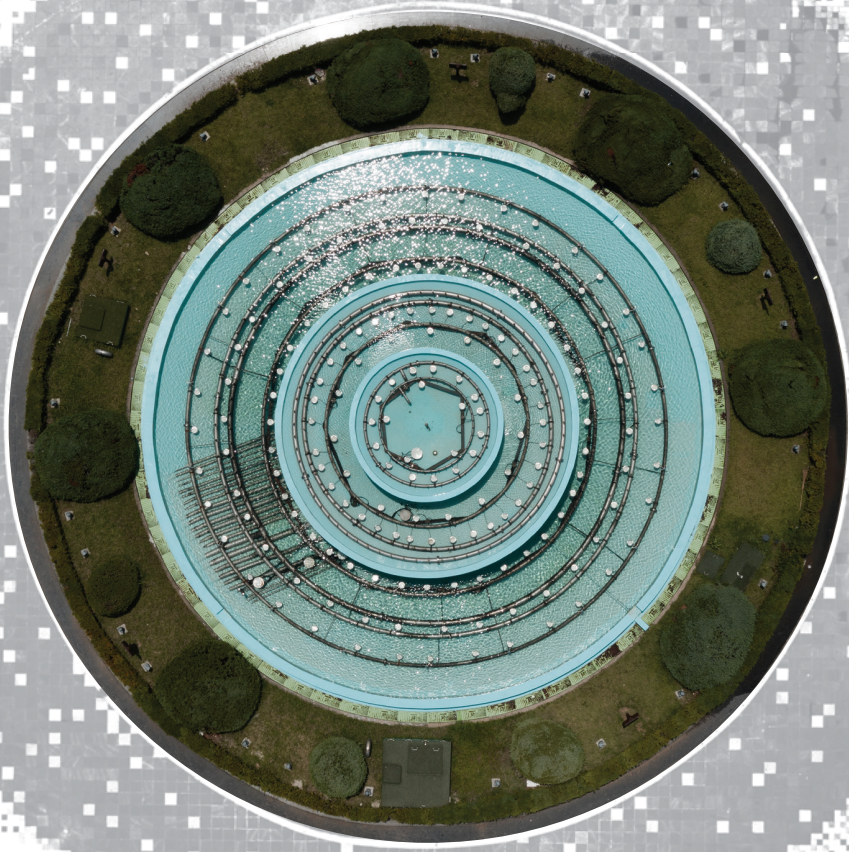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강남점 | 인천공항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www.ssgdfs.com | 고객센터 1661-8778

IN AIVISAN ARTS CENTER

남산예술센터
2019 시즌프로그램

오묘한
시공간과
자연
무다 공연작업단

2019.
11.
6.
—
11.
17.



공병준
김도완
김재훈
박선희
배소현
양종욱
최수진
황혜란

휴먼 푸가

Human Fuga

평일 19:30 토/일 15:00

원작 한강 『소년이 온다』 | 연출 배요섭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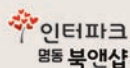
IN AIVISAN ARTS CENTER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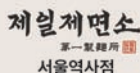
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집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02-6004-739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매콤순살닭튀김小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02-774-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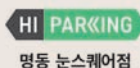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

070-7017-6404



당일 티켓 소지 시,
1시간 무료 주차 (6,000원 상당)
1시간 이후 초과 주차 시,
10분당 1,000원 부과
(최대 10,000원 부과)

02-3783-4101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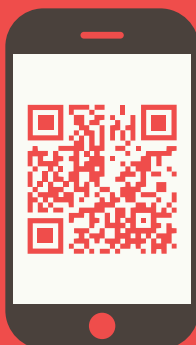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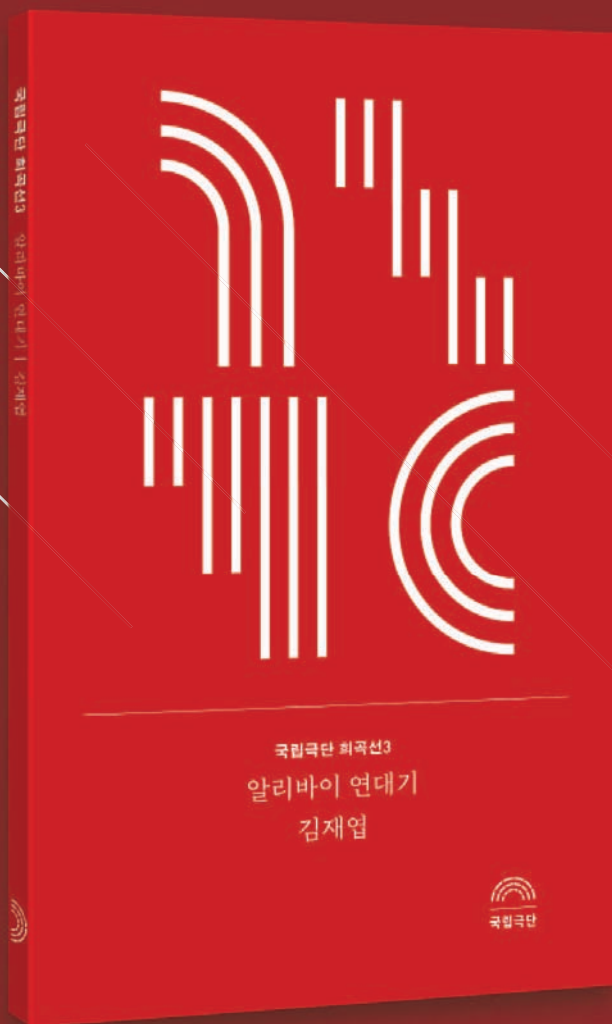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8,000원

출판사 걷는사람

본 희곡선은 공연장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희곡선 알리바이 연대기 | 김재엽

국립극단은 우수 희곡 개발과 작가 지원을 위해 걷는사람
과 함께 국립극단 희곡선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무대 위
빛나는 순간들이 한국 연극사에,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 희곡선1 | 1945 배삼식

국립극단 희곡선2 | 뼈의 기행 백하룡

국립극단 희곡선3 | 알리바이 연대기 김재엽



2019. 11. 15. - 11. 17.

구성·연출: 매튜 렌튼 Matthew Lenton

원작: 모리스 마테를랑크 Maurice Maeterlinck

무대·조명: 카이 피셔 Kai Fischer

음악·음향: 알래스터 맥레이 Alasdair Macrae

영상: 핀 로스 Finn Ross

의상: 이브 램버트 Eve Lambert

대본: 베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

드라마투르그: 파멜라 카터 Pamela Carter

협력연출: 다비드 피니 카렌지 Davide Pini Carenzi,

엘리시아 달리 Elicia Daly

평동예술극장

출연:

피터 켈리 Peter Kelly,

폴린 골드스미스 Pauline Goldsmith,

폴 히키 Paul Hickey,

오로라 페레스 Aurora Peres,

엘리시아 달리 Elicia Daly,

올리비아 베로우클러프 Olivia Barrowclough,

존 카제크 John Kazek,

다비드 피니 카렌지 Davide Pini Carenzi

SHINSEGAE
신성개
아트센터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단

극단 베니싱 포인트 (영국 스코틀랜드)

Vanishing Point

인테리어즈

Interiors

해외초청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언젠가 저도 제 아들에게 제 인생의 숨겨놓은 알리바이를 고백할 순간이 찾아오겠지요.
그때 과연 아버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